

독자투고 — 알튀세르 이해의 新思考

마르크스 주의 '제변질' 비판통해 재발견

1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적 선언」에 대한 비판의 양면성

먼저, 본인의 줄거리(대략적으로 1990년 11월5일자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적 선언」에 대해 신동인(본고 철학3)학원이 지적한 (대략적으로 1990년 11월12일-독자투고)번역상에 나타난 구제적 오류·비유적 표현 일관, 정확한 내용 전달못함, -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신동인학원이 지적한 타당함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의 알튀세르에 대한 이해는 사전적 지식과 선험적 판단에 사로잡혀, 알튀세르를 도대체로 구조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알튀세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비판의 품성

이에 앞서 비판·반박의 논쟁에서 갖춰야 하는 비판의 기본 자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비판은 그 대상에 비판되어야 할 명확한 논거,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판은 그 대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완결될 수 있다. 비판은 양의 두가지는 갖추어야 유의미성을 띠게 된다.

3. 알튀세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 이론은 알튀세르를 어떻게

게 수용되어야 하는 변혁운동에-하는가?의 문제이다. 알튀세르의 국내에 소개되어 자신의 이론적 편향을 진지하게 검토받은 적은 아직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공공연히 '구조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構造主義와 현대마르크스주의' - M. 글록스만 지음, 한울이 있고, 알튀세르 이해의 일면적인 측면만 강조한(저자의 편향성 가운데) Alex Calinicos의 '마르크스주의의 미래는 있는가?'-(열음사 1987)와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구조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진 '구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P291-306를 참조하기 바람-특정화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동인의 알튀세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결코 위 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알튀세르의 전제적의 계층을 추적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운동사에서의 보편적 논쟁이 프랑스에서 특수 역사

적 맥락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융합'의 현재적 형태로서의 '스탈린적 편향'을 말하는 것인데 알튀세르의 그 근원을 마르크스주의의 모순에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비판과 공백에 대해서는 문화와 지성사의 '문화'와 '사회' -1988년 겨울호 P1487-이해를 참조-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튀세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적 의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제변질' (주로 스탈린과 그람시에 의해 대표되는 것들) 및 '제변질'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를 재발견하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에컨대 알튀세르의 철학적 입장은 '방법'이나 '논리' 보다는 '문

제'로 귀착되는 바, 이는 사회주의의 기존의 지배해왔던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전제할 수 밖에 없으며, 개혁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이다.

즉, 스탈린적 편향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필자는 나름대로 알튀세르 지적인 스탈린적 편향의 핵심에서 답을 구하게 된 것이다. 알튀세르의 스탈린적 편향의 이론적 핵심이 SMP론(사회주의생산양식론)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편향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서의 경제주의와 주위와의-인간주의는 그 극단이다-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스탈린적 편향은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운동의 '융합'의 역사속에서만 올바르게 인식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팔로 알튀세르의 사회주의 인간론-이 'For Marx'의 'Marxism and Humanism'을 참고-에 대해 간단히 언급 하겠다.

그는 인간의 존재와 존재태를 지향하는 고전적 휴머니즘의 추상성, 비실재적 본질을 폭로하며 '이데올로기로서 휴머니즘을 승인하고 인식한다. 단지 마르크스 역사주의에 따라, 혁명적 휴머니즘은 단지 '계급휴머니즘' '포롤레타리아트휴머니즘' 뿐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결정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내포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 형식으로 조응하는 생산의 사회적 존재(프로레타리아트독재)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알튀세르와 발라바르의 공동연구작업으로 이뤄진 '민주주의와 독재연구'를 참조하여 현재의 변혁운동의 성공 여부와 관련되는바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확신한다.

강 준 원(사학2)

현 사회주의 체제의 분석과 열쇠 제공 생산양식과 이데올로기의 조응강조

패리 앤더슨의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론과 실천 1987)등이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의 알튀세르의 주류 문화이론, 비평이론의 차원에서 수용되고 철학이나 역사학의 수준에서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80년대 사회과학도들을 중심으로 종속이론에 대한 소동에서 생산양식 결합론 또는 구조주의 국가론의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수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의 알튀세르 비판은 그의 문제제기의 정제적 측면(1962/63 이전의 저작)과 알튀세르의 자기비판 및 정제의 노력(1967/68년 이후의 저작)을 무시하고 알튀세르 그 자신이 이론주의적 경향(또는 편향)이라고 부르는 그의 최초의 제정적화(에컨대 '지식효과' '사회효과'

적 형태로 관철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융합'의 현재적 형태로서의 '스탈린적 편향'을 말하는 것인데 알튀세르의 그 근원을 마르크스주의의 모순에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비판과 공백에 대해서는 문화와 지성사의 '문화'와 '사회' -1988년 겨울호 P1487-이해를 참조-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튀세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적 의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제변질' (주로 스탈린과 그람시에 의해 대표되는 것들) 및 '제변질'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를 재발견하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에컨대 알튀세르의 철학적 입장은 '방법'이나 '논리' 보다는 '문

연재소설 <마지막회>

창상에 스미는 하자

글: 오 완 진 <영문2> 그림: 장 세 한

트럭에 실린 동주는 시체실 근무조에 편성되어 어 국군 원주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호루가 바 람에 부딪치며 뒤통리고 쪼갠 틈새로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희미한 어둠속에서 모두들 고 개를 맞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씩 한숨이 새어나오고 무릎을 잊으려하는 듯이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사실에서 한줄기 은기가 동주의 온몸을 감싸 고 새벽의 싸늘한 공기가 총끝에 스며들고 있었 다. 얼어붙은 별들은 도대체 움직이지 않지 않았 고 달도 그랬다. 하늘에선 그러했다. 움직이는것 은 앙상한 나무가지와 낙엽, 그리고 시체실에서 흘러드는 불빛이었다. 아니 지상에 있는 모든것 은 절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었고 그것은 무형의 존재였다. 조금, 많이, 거대한 힘으로 모든것을 끌어내리고 있었 다. 이렇게 존재하는 억압의 힘이 그것과 같다고 동주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질타 한대가 달 려왔고 동주는 그 불빛속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취조실로 들어갔다.

"충성!" "그대 그래... 충성을 해야지... 안그래?" 그들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취조 실엔 아무 기구도 없었다. 단지 한쪽이 유난히 쨌그러진 책상 하나만이 있었다.

"어때, 우리하고 일해보고 싶지않아? 잘만 협 조하면 상당

한 대우를 받을텐데." "무슨?" "아... 예를 들자면 제대 하고 취직된 제대가, 자제 학교도 삼류 를 다녔던 거 만... 정도도 봐서 더 좋은 것도 생각할 수 있지." "무슨 일을 협조 하라는 말이지..."

"간단해, 한평생과 감관석에 대해 조금만 이야 기해주면 돼."

"왜?" "왜 그렇게 놀라나, 잘 생각해보라구." 그들은 동주의 어깨를 두들기며 소리쳤다. 도 대제 한선배와 김일병에 대해 무엇을 말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좋은 대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주는 생각했다. 씹고 또 씹어먹어 보았다. 저절 로 고개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회유가 삼일동 안 계속되었다. 담배 풍초가 쌓여갔고 검은 안경 을 쓴 사람은 여전히 손가락을 쥐고 있었다.

동주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날이 새었다 생각했 다. 완전히 폐쇄된 취조실엔 싸늘한 냉기만이 가 득했고 갓 쓴 외동이 시크롭스의 외눈처럼 빛나 고 있었다. 김상사가 책을 한아름 안고 들어섰 다.

"이봐, 이것 이것 네가 김관석에게 사다준거 지. 맞지?"

"예." "이것을 전부 네 책상서랍에서 나왔다. 그 새 끼가 네게 유산으로 물려준 모양이지? 이새끼! 이게 무슨 책인줄이야? 빨갱이 자식들이 보는 책이야. 너 그걸 알고있지?"

그는 책상을 걸어차며 말했다. 울림소리가 취 조실을 뒤흔들고 있었다. 김일병의 책이 자 두 달전, 보안검열 때였다. 김일병의 책이 자

신의 관물대에 보관해오다가 발각되었다. 그는 보안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이 주일의 영향을 살아야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를 굽히 려하지 않았다. 그후 그는 다시 한 번 보안대로 불려갔다. 그것이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었 는지 동주는 생각하고 있었다.

"너 뭐가서서 연극했지. 그게 왜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한 노동자가 진실하게 살기위해 억압과 굴종

의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뭐야? 이새끼가 환상했나!"

김상사의 주먹이 날아왔다. 연이어 고통소리가

터졌고 동주는 얼굴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빨이 누군줄알고... 한평생이를 잡아넣고 오

신분이다. 너같은 놈 하나쯤은 오징어처럼 만들 수 있어."

"그는 하랑'의 원고를 책상에 규칙적으로 두들

기며 김상사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놈은 문화란가 뭔가를 만들어 순진한 노동

자를 선동하고 악질적인 사상을 유포했다. 네가

그놈을 알고 지낸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네

놈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표백되지 않아. 하얀 종

이에 빨간 물감이 떨어지면 빨갛게 되는것과 마

찬가지야. 그리고 네놈이 군복을 입고 그 연극을

본것 하나만으로도 직책상 실수 있어. 남한산성

갈래? 가고싶지 않으면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

오 후 쯔

동주는 진술서

를 썼다. 필

리는 손끝을

누르며 썼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진

술하게 썼

다. 한선배

와 김일병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

지 소신있게

썼. 세상

의 부조리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부

터져야 하는지

썼다. 진

실을 알리는

자만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하던 한선

배를 생각하

며 썼고 김일

병이 남겨준

책의 의미를

삼기하면서

썼다. 동주는

자신있게

썼다. 다음 날

진술서는

짖겨졌다. 다

른 진술서

를 썼다. 또

짖겨졌다. 심

하게 맞고 또

썼다. 쓰

면 쓸수록

동주의 믿음

은 굳어졌다.

"이새끼, 너

여기가 뭐라

고 있어, 영?"

김상사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지를 꺼내

며 말했다. "휴가를 다녀와서 사무실에서

썼던 편지

지였다."

"가라고, 억압

의 사슬을 뚫고

가라고? 한

정 벌이되라고? 그

대 벌하느라

불어봐라."

제벌이냐 날아

왔다. 미끈한

액체가 흘러

내렸다. 다급히

부르느라, 대답

소리, 어지러운

군 화발자속소

리가 희미하

게 들려왔다. 동주는 단

파 음처럼 끊어진

의식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가라, 억압을

뚫고, 한

정 벌이되라

고? 그대

벌하느라

불어봐라."

제벌이냐

날아왔다.

미끈한 액

체가 흘러

내렸다. 다

급히 부르

느라, 대답

소리, 어지

러운 군 화

발자속소리

가 희미하

게 들려왔

다. 동주는

단파 음처

럼 끊어진

의식속에서

외치고 있

었다. (가라,

억압을 뚫

고, 한정

벌이되라

고? 그대

벌하느라

불어봐라."

제벌이냐

날아왔다.

미끈한 액

체가 흘러

내렸다. 다

급히 부르

느라, 대답

소리, 어지

러운 군 화

발자속소리

가 희미하

게 들려왔

다. 동주는

단파 음처

럼 끊어진

의식속에서

외치고 있

었다. (가라,

억압을 뚫

고, 한정

벌이되라

고? 그대

벌하느라

불어봐라."

제벌이냐

날아왔다.

미끈한 액

체가 흘러

내렸다. 다

급히 부르

느라, 대답

소리, 어지

러운 군 화

발자속소리

가 희미하

게 들려왔

다. 동주는

단파 음처

럼 끊어진

의식속에서

외치고 있

었다. (가라,

억압을 뚫

고, 한정

벌이되라

고? 그대

벌하느라

불어봐라."

제벌이냐

날아왔다.

미끈한 액

체가 흘러

내렸다. 다

급히 부르

느라, 대답

소리, 어지

러운 군 화

발자속소리

가 희미하

게 들려왔

다. 동주는

단파 음처

럼 끊어진

의식속에서

외치고 있

었다. (가라,

억압을 뚫

고, 한정

벌이되라

고? 그대

벌하느라

불어봐라."

제벌이냐

날아왔다.

미끈한 액

체가 흘러

내렸다. 다

급히 부르

느라, 대답

소리, 어지

러운 군 화

발자속소리

가 희미하

게 들려왔

다. 동주는

단파 음처

럼 끊어진

의식속에서

외치고 있

었다. (가라,

억압을 뚫

고, 한정

벌이되라

고? 그대

벌하느라

불어봐라."

제벌이냐

날아왔다.

미끈한 액

체가 흘러